

2011년 1/4분기 세계 실과 원단 생산량 감소

2011년 1/4분기 동안 세계 실과 원단의 생산량은 2010년 1/4분기 이후 증가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하였다. 전년 대비 세계 실과 원단의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
지난 분기 대비 실 생산량은 2011년 1/4분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11.3% 감소하였다.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,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12.2%, 2.6%, 0.1%씩 떨어졌고, 북아메리카는 5.1%까지 증가하였다.

ITMF에 의하면, 전년 대비 실 생산량은 북아메리카 10.2%, 아시아 6.6%, 유럽 1.3%까지 증가하였지만 남아메리카에서는 0.6% 감소하였다.

세계 실 재고량은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2011년 1/4분기 동안 2% 증가하였다.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실 재고량은 각각 11.1%와 2%까지 증가한 반면, 유럽은 0.3%까지 감소하였다.

그러나 연간 기준으로는 세계 실 재고량은 7.4%까지 증가하였고, 특히 남아메리카는 83%까지 급증하였다.

ITMF에서 집계한 이 통계자료는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, 2011년 1/4분기 동안 세계적인 원단 생산량이 11.8%까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. 이러한 통계결과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원단 생산량이 각각 13.3%, 5.9% 증가하였지만, 아시아와 유럽에서 원단 생산량이 각각 14.3%, 2%씩 떨어졌기 때문이다.

2010년 1/4분기 대비 전 지역의 원단 생산량은 증가하였다. 남아메리카의 경우, 15.7%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, 유럽이 3.8%,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는 3.7% 증가하였다.

세계적인 원단 재고량은 아시아의 원단 재고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2011년 1/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. 그러나 남아메리카, 북아메리카, 유럽의 원단 재고량은 감소하였다.

ITMF 조사 결과, 연간 기준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동안, 아시아,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원단 재고는 더 증가하였다.

2011년 1/4분기 동안 유럽 지역의 실과 원단의 주문량은 지난 분기 대비 각각 0.3%, 2.8% 증가하였다. 전년 대비 유럽 내 실과 원면 주문량은 각각 1.1%와 2%로 증가하였다. 브라질에서는 실과 원단의 주문량이 각각 13.4%와 4.7%까지 급락하여 연간 기준으로 25.3%와 13.2%까지 감소하였다.